‘납품 비리’ 수사 어디까지…공직사회 긴장

전 동구청장·광산구청 비서실장 체포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간부 2명 구속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의 용역계약 비리로 촉발된 검찰의 수사가 전직 구청장으로 불똥이 튀었다. 지난 주말 이후 광주지역 한 전직 구청장과 또 다른 구청의 비서실장이 체포되고, 산하기관의 간부 2명은 구속됐다.

브로커 구속에 이어 관련 공무원들이 잇달아 체포·구속되면서 광주·전남 공직사회는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관공서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14일 납품 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 동구 전직 구청장을 체포했다. 앞서 13일 같은 혐의로 광주 광산구청 전 비서실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광주시·전남도 산하기관인 광주도시공사 팀장과 전남개발공사 부장을 14일 구속했다. 이들 간부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광주지법 이진웅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발부하면서다. 이들은 모두 광주의 한 LED 조명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납품 계약을 도와주거나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간부 공무원이 전격 구속되면서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긴급 부서장회의를 여는 등 종일 분주하고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김용구(63)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의 용역계약 비리에서 시작됐다. 김 전 자문관이 관급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몇몇 건설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던 중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납품 비리가 포착됐고, LED조명업체에서 이른부 ‘뇌물 장부’가 발견됐다. 이 장부에는 100명에 달하는 명단과 함께 일시·액수 등이 꼼꼼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광주 광산구청·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담당 공무원을 소환조사 하는 등 광주시·전남도 산하기관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이 수사와 관련해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브로커 2명과 김 전 자문관의 친척인 가구업자를 구속했다. 이들은 광주시 가구 구매 또는 인쇄 계약과 관련, 알선 명목으로 몇몇 업체로부터 각각 2억1000여만원과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광주시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납품 계약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 정책자문관과 광주시 공무원들의 불법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자체·공공기관 등 광주·전남 관공서에 납품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밝혀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의 한 공무원은 “하루가 멀다하고 공무원들이 체포·구속되면서 지역 관가가 뒤숭숭하다”며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을 지경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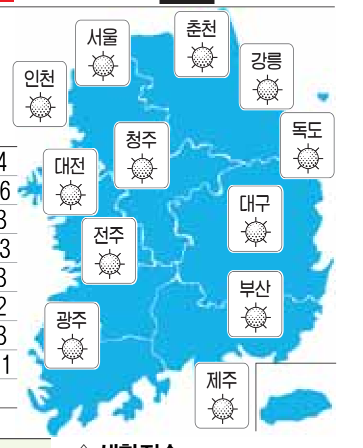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7:07	달뜸	18:23
해짐	17:27	달짐	07:25

반짝추위

내일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체감온도가 낮아져 춥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8/14	보 성	맑음	8/14
목 포	맑음	9/12	순 천	맑음	11/16
여 수	맑음	11/17	영 광	맑음	8/13
나 주	맑음	8/15	진 도	맑음	11/13
완 도	맑음	11/13	전 주	맑음	7/13
구 례	맑음	7/14	군 산	맑음	6/12
강 진	맑음	9/13	남 원	맑음	6/13
해 남	맑음	10/13	흑산도	맑음	10/11
장 성	맑음	7/1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1.5~3.0
	먼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먼바다(동)	북서~북	1.5~2.5	북서~북	1.5~2.5
	먼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 생활지수

뇌졸중	주의
감기	낮음
자외선	보통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7:28	02:06
	20:00	14:45
여수	02:57	09:28
	15:28	21:39

◇ 주간 날씨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3/17	5/17	6/18	10/17	9/16	7/14	4/10

광주 수험생 수송버스 94대 투입·전남 숙박비 지원

수능 D-2…지자체 종합대책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광주·전남 자치단체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올 수능은 오는 17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3개 시험장(광주 38·전남 47개)에서 치러진다. 응시생은 60만 5988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5199명 감소했다. 광주에서는 2만744명이, 전남에서는 1만8196명이 응시한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광주·전남에서는 시험 당일 관공서와 출자·출연기관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늦춰 수험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수능 특별교통대책상황실(062-613-4022)을 운영하고 교통지도 차량 22대, 견인차 8대, 지도요원 등 622명 투입한다.

시내버스 기·종점과 시험장 인근 지하철 역사 등 25곳에 공무원 등 질서요원을 배치해 배차시간 준수와 경적 금지를 안내한다.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을 돕기 위해 오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수험생 긴급 수송반을 운영한다. 또 관용차량 12대, 직원 개인차량 82대 등 총 94대를 버스정류장 등 시내 주요지점 49곳에 투입해 비상수송이 필요한 수험생을 시험장으로 수송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신안 안좌·하의·임자·도초, 진도 조도, 완도 금일·노화, 여수 여남고 등 8개 도서지역 수험생193명을 위해 숙박비(1인당 7만원) 등을 지원하며 해경과 연계, 기상악화 등에 대비한 수송 대책을 마련했다.

입실시간이 촉박한 수험생을 위해 순찰차와 구급차도 지원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입원했거나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을 위해 119 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수능 당일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시와 5개 자치구 보건소에는 긴급의료대책 상황반을 운영한다. 광주시와 소방본부, 21개 응급의료기관 등과 핫라인을 가동하고, 관련기관 응급의료 무선통신장비(TRS) 130대를 구축한 상태다.

듣기평가 시험(3교시) 시간대인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 광주공항 민항기 이착륙이 금지되고, 군 전투기는 시험 당일 훈련이 중지된다.

광주경찰청도 순찰차 69대와 싸이카 8대를 수험생 주 이동로에 배치, 신속한 수송을 적극 지원한다. 전남경찰청은 순찰차·싸이카 등 202대를 배치하고,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625명이 수험생 수송을 돕는다. 한편, 교육부는 14일 오전 7시30분부터 전남 7개 교육지원청을 비롯,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수능 문제지와 답지를 배부했다.

/최권일기자 cki@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수능 시험지 배포 14일 오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7일) 문제지와 답지가 담양교육지원청을 비롯, 전국 85개 시험지구로 배부됐다. 담양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시험지·답지 수량을 파악한 뒤 보관 창고로 옮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리산 탐방로 출입 통제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는 15일부터 1개월간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제구간은 종주 능선의 노고단~장터목을 비롯한 성삼재~만복대~정령치 코스 등 25개 구간 128.6㎞다. 출입통제 구간 무단 출입시 자연공원법(제8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상, 적설, 강우 등 여건에 따라 통제기간이 변경될 수 있어 산행을 떠나기 전 확인이 필요하다. 문의 061-780-7700.

/김형호기자 khh@

전남대 총장 후보 추천위 연기

후보자 ‘자기 교재 표절’ 의혹

전남대 총장 후보의 ‘자기 교재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부 추천 일정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14일 전남대에 따르면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장추천위)는 지난 11일 총장 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을 실시하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부터 A 후보의 자기 교재 표절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애초 예정됐던 연구윤리 검증기간(2~17일)을 맞출 수 없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학교 안팎에서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표절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후보는 자신이 낸 대학 교재 일부 내용이 중복된 데 따른 의혹과 관련, “법 조문과 판례를 인용한 것이 대부분이라 별 문제 없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 판례의 경우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

총장추천위는 이로인해 애초 15일 개최키로 했던 추천위원회 회의를 부득이 연기, 총장 임기 만료(12월 20일) 한 달 전인 18일까지 교육부에 총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해안 내일 해수면 최대 상승

슈퍼문 여파 목포 510㎝

14일 ‘슈퍼문’으로 인해 16일 전남지역 해수면이 최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14일 “해안을 접한 16개 시·군에 사전예방 조치사항을 지난 11일 시달, 인명·재산 피해 대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뜨는 슈퍼문으로 목포지역은 15일부터 17일까지 해수위가 ‘주의’단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16일 오후 3시께 해수면 높이가 ‘주의’단계(475cm)보다 높은 510cm에 도달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15~17일 대조기에는 목포 동명동사거리 200m, 여수 국동 롯데마트앞 도로 20m, 신안 전장포 선착장, 영광 항월항 등이 잠시 침수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해수면 높이가 6cm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통 서금요법·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태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봉, 서암온열뜸기, 아큐빔, 금봉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유태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광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전국의 160여 지회를 이용 바랍니다.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사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